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우리나라의 숲과 새들

송수권 외 지음

1988년 素月詩文學賞 수상작품집. 대상 수상자 宋秀權의 작품 29편과 10인의 추천 우수작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숲과 새들」 「향피리」 「세상읽기1·2」 등 송수권의 시들은 “곰처럼 향토향을 문개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던 소감처럼 소박한 감성이 가득하다. 강은교·김광규·김승희·김용택·이동순·이성복·이승훈·정호승·조정권·최하림의 추천시가 각각 7편씩 실렸다.

文學思想社/B6 변형/228면/2500원

반야심경

바그완 라즈니쉬 지음/이윤기 옮김

인도사람 라즈니쉬의 가르침을 기록한 「반야심경」 중 문답부분을 제외한 5장을 번역한 책이다. 많은 일화를 통해 진리에 한걸음씩 다가설 수 있게 한 저자 특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佛性과 잠재적 부처의 본체를 깨닫게 된다. 일곱 가로장의 사다다리, 식자우환, '무'의 향기, '무'에의 귀의, 저쪽에서 오는 메시지 등 다섯가지 이야기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

學園社/B6 변형/246면/1000원

현대화학의 세계

일본화학회 편/문병렬·신병식 옮김

자연과학에서 물질의 변화와 반응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 이 책은 인간본능의 욕구인 건강에 관계되는 자연현상과 생명체의 탄생과 치유, 화학반응 및 물리적 작용연구에 관계되는 사고방식, 사회·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정보기술의 제조와 첨단과학의 발전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지구에 왜 생명이 탄생했는가. 암이 생기는 메카니즘은…… 등 화학의 과제들에 대한 흥미가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을 더욱 풍부히 해준다.

汎友社/A5 변형/256면/3000원

방드르디

미셸 뚜르니에 지음/이재형 옮김

1967년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끝」을 저자가 직접 청소년용으로 개작한 작품. 로빈슨이 섬에 도착

한 후 고독과 방드르디의 영향으로 겪게 되는 인간적 변화가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방드르디를 '선량한 미개인'이지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존재로 부각시킨 점, 섬에서 느끼는 로빈슨의 '절대적인 고독감'으로 인간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등이 짧은 이야기 속에 깊은 사유의 소재를 제공해 준다.

고려원/A5 변형/180면/2500원

천재들의 학창시절

게르하르트 프라우제 지음/이인식 옮김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 68명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은 책. 문학·과학·정치·경제 각 분야에서 천재적인 독창성을 보였던 위인들의 학교생활의 고충과 극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부딪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불안, 학교생활에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감 등과 함께 배움의 기쁨, 지식을 흡수하고자 하는 지적 욕망 등이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준다.

진선/A5 변형/220면/2700원

재미있는 물리여행 1·2

루이스 엠스타인 폴 휴이트 지음/백운선 옮김

딱딱한 물리이론을 생활에서 흔히 보는 현상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문답식 해설서. '차가운 물이 가득찬 그릇에 얼음이 떠 있다. 얼음이 녹으면 그릇의 물은 흘러넘칠까?' 등의 질문으로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부피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엮여졌다.

1권은 역학·유체·열·진동에 관한 내용이고 2권은 빛·전기와 자기·상대성이론·양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시공간과 우주여행에 관련된 상대론, 컴퓨터·반도체의 기초이론,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다루는 양자물리에 대한 호기심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김영사/A5/총524면/각 3000원

높은 땅 낮은 이야기

복거일 지음

「비명을 찾아서」로 '대체역사'의 새로운 소설기법을 시도해 문단의 주목을 끌었던 저자의 두번째 전작 장편소설. 60년대, 휴전선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감춘 현장체험이 현이

립중위를 통해 서정적으로 묘사된다. 소설은 155개의 짧고 긴 에피소드의 이음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일상적 삶이란 전쟁 아닌 전쟁으로 계속되는 특이한 한국적 현실임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文學과 知性社/A5신/270면/3500원

인간아, 인간아

정현기 지음

국내 작가들의 대표적인 소설을 저자의 시각으로 짚막하게 논평한 에세이모음. 蔡萬植의 「濁流」李箱의 「날개」 등 삶의 조각진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과 黃皙暎의 「삼포가는 길」, 徐永恩의 「황금깃털」 등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기한 작품, 全商國의 「안개의 눈」金源一의 「바람과 강」 등 시대의 아픔을 그린 작품 등 모두 88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삶에 대한 사랑으로 관찰되고 있다.

정음사/A5신/368면/3500원

해변의 운문집

高銀 지음

풍부한 민족정서를 지닌 시인 고은의 문학 전체를 모은 「고은전집」의 첫째 권. 「시인이 되기를 얼마나 열망했던가! 이강산의 시인으로 공인된 그해 나는 스물다섯살이었다」는 감회를 주었던 첫시집 「彼岸感性」(1960)의 45편과, 제2시집 「해변의 운문집」(1964)의 「여름 강가에서」 등 53편, 제3시집으로 「시의 편력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제주가집」(1967)의 시 53편이 연대순에 따라 수록됐다. 저자의 문학세계 여정을 함께 걸으며 크고 넓은 인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청하/A5/282편/3500원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김동일 외 지음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경제·윤리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서술한 논문모음. I부는 「한국사회와 인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김동일교수의 논문으로 근대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문제를 고찰했다. II부는 경제학자 박세일의 논문 「경제·정치발전과 윤리」를 실었고, III부는 「시민공동체와 시민윤리」(황경식), IV부는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상을 새롭게 조망한 글(김태길)

을 각각 수록했다.

文音社/A5신/300면/3500원

모스크바의 봄

김광은 지음

세차레 소련을 여행하는 동안 관찰한 소련 사회의 이모저모를 담은 여행기. 외국인 관광객으로 봄비는 크레믈린 궁과 문화의 중심지 모스크바, 독서열이 높다는 키예브인들, 카자흐지방에서 만난 김치할머니, 타시켄트 근교의 한인 집단농장 등 소련의 구석구석이 세밀하게 관찰되고 있다. 호텔방의 화재경보기를 도청장치로 오인했다는 에피소드를 통해 소련에 대한 일방적 편견에 대한 교훈을 남기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기르게 한다.

제삼기획/A5신/298면/3500원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

윌리엄·마블 사하키안 지음/이종철 옮김

철학이란, 인식적·윤리적·종교적·사회정치적·형이상학적 경험 등 인간이 접하는 모든 경험 영역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비판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철학의 주요 부분을 9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인식론과 논리학, 윤리학과 인생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법철학, 종교철학 형이상학 등이다. 각 장은 결국 인간의 삶과 결부된 본질적인 문제들로서 심오한 철학과제를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설했다.

文藝出版社/A5신/268면/3000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앨버트 크라스너 지음/이준호 옮김

삶이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무게인가? 책에 담긴 술한 말은 내면의 숙제를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많지 않은 언어로서 갈등하는 영혼을 평온케 하고 있다. 전체는 독립된 5장의 내용으로 구성, 저자의 정신적 성장과 의식발전을 따라 배열됐다. 책을 통한 여행자는 '방랑'에서 출발하여 고통, 자각, 성장, 완성을 상징하는 페이지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단계별 여행마다의 다른 시각적 형태 속에서 정신의 힘을 자기화하고, 마침내 영혼의 방향을 끝맺게 한다.

명상/B5 변형/134면/3300원